

# numbers 제 77호



## 주요 내용

2020. 12.25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19 시대 한국인 기부 현황]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2. 최근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 크리스마스(Coronavirus Christmas)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 사회 통계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그동안 연말연시면 불우이웃 돕기, 자선행사 등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연례 행사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과 더불어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드는 것 같다.

기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의 하나로 가장 익숙한 친사회적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율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코로나19 관련 우리국민의 기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기부금이 감소되고, 기부 중단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사회 구성원의 고통에 공감해야 하며, 이웃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 77호에서는 작년 말에 이어 우리나라 기부 추세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국민의 기부 행태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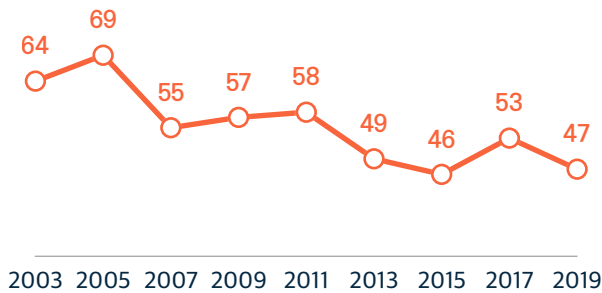
1



##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기부 경험률, 점점 하락하는 추세!

- 2019년 기부 경험률(종교적 헌금 제외)은 47%로 2017년 대비 6%p 하락했으며, 2003년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음
- '무종교인'보다는 '종교인'의 기부 경험률이 높으며, '천주교인'(72%), '개신교인'(65%), '불교인'(63%)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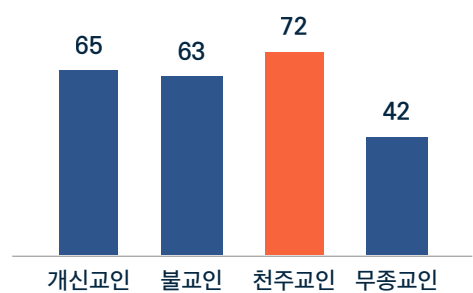
[그림] 기부 경험률(2003~2019)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자료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2차)' 2020.2020.11.27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그림] 종교별 기부 경험률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17.12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비개신교인 각1,000명, 온라인조사, 2017.9.22.~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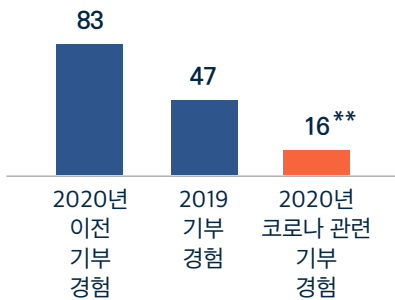
2



## 코로나19 기부 경험률, 16%

- 우리 국민의 83%가 2020년 이전까지 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2019년 한해 동안의 기부율은 47%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 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올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한 경험률은 16%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관련 기부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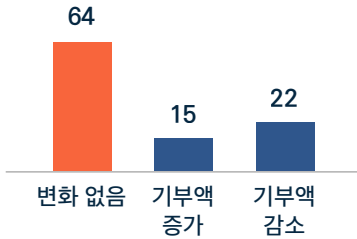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아름다운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1차 2020.7.21, 2차 2020.11.27, (1차 조사 :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5.11.~5.14, 2차 조사 :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Note : 기빙코리아 5월과 8월 조사 결과를 합하여 총 3,006명 응답자를 기준으로 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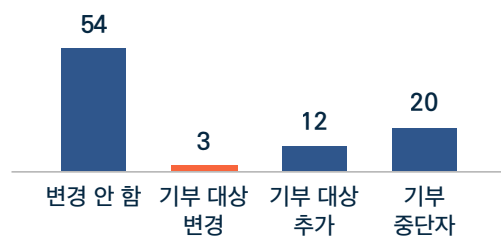
## ● 코로나 시기, 기부액 감소/기부 중단 비율 높아짐

- 기부자의 64%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부액이 기존 기부액과 '변화 없다'고 응답함. 8월 기준 기부액이 '증가'한 기부자(15%)보다 기부액이 '감소'한 기부자(22%)가 더 많음
- 기부 대상 역시 기부 대상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기부자보다 '기부를 중단'한 기부자가 더 많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대목임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액 변화 (%)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대상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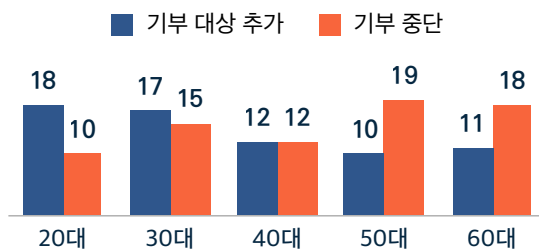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아름다운 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2020.11.27, (2차 조사 :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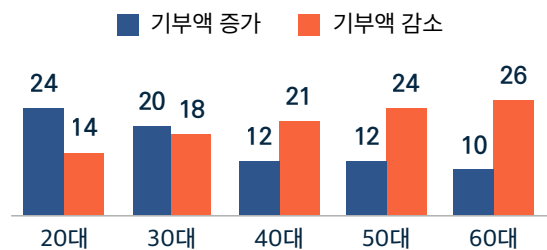
## ● 코로나 시기의 기부, 중장년층 줄어들고, 반면 20-30대 젊은층 증가하는 현상 나타남!

- 코로나19 시기에 기부를 중단한 비율은 50~60대에서 높은 반면, 기부 대상을 추가한 비율은 20~30대에서 높음
- 코로나19 시기 기부액 감소는 50~60대에서, 기부액 증가는 20~30대에서 높음
- 이상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부의 주요층이면서 경제 활동 비율이 높음(경제적 타격이 큰) 중장년층에서 기부율 및 기부액이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의 기부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줌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 대상 변화(연령별) (%)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액 변화(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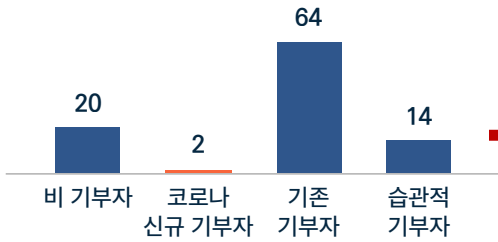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아름다운 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2차 2020.11.27, (2차 조사 :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3

##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신규 기부자 크게 늘지 않아!

- 작년까지 기부 경험이 없다가 코로나19 기부에 참여한 ‘코로나 신규 기부자’는 단지 2%로 나타나, 재난 상황이라 해서 기부 행동이 급격히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일반국민의 기부 행동 유형 (%)



- 비기부자 : 이전 기부 경험도 없고 코로나19 기부도 하지 않은 자
- 코로나 신규기부자 : 이전 기부 경험 없으나 코로나19 기부한 자
- 기존 기부자 : 이전 기부 경험있으나 코로나19 기부하지 않은 자
- 습관적 기부자 : 이전 기부 경험있고, 코로나19 기부한 자

\*자료 출처 : 아름다운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1차 2020.7.21, 2차 2020.11.27, (1차 조사 :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5.11.~5.14, 2차 조사 :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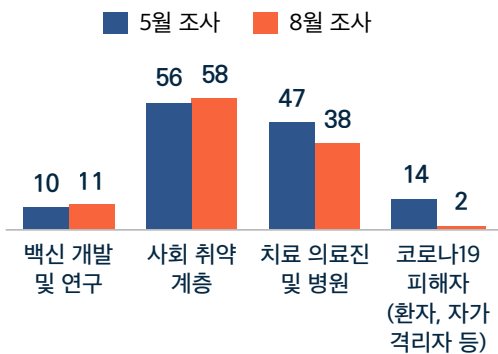
\*\*Note : 기빙코리아 5월과 8월 조사 결과를 합하여 총 3006명 응답자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기부행동유형을 다시 추정하였음

4

## 기부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현물 기부가 현금 기부보다 높아(8월 기준)

- 코로나19 관련 기부자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를 함. ‘코로나19 피해자(환자, 자가 격리자 등)’에 직접 지원한 비율은 5월 조사 대비 8월 조사에서 급감함(14% → 2%). 이는 다른 재난 상황과는 달리, 코로나19는 피해자(확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임
- 현금 기부액 평균은 5월 70,888원, 8월 75,916원으로 7만원대로 나타났으며, 현물 기부액은 5월 63,336원에서 8월 115,397원으로 늘어남. 마스크 기부, 손세정제 기부 등 코로나19 관련 기부 방식이 다양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임

[그림] 코로나19 관련 기부 분야 (%)



[그림] 코로나19 관련 기부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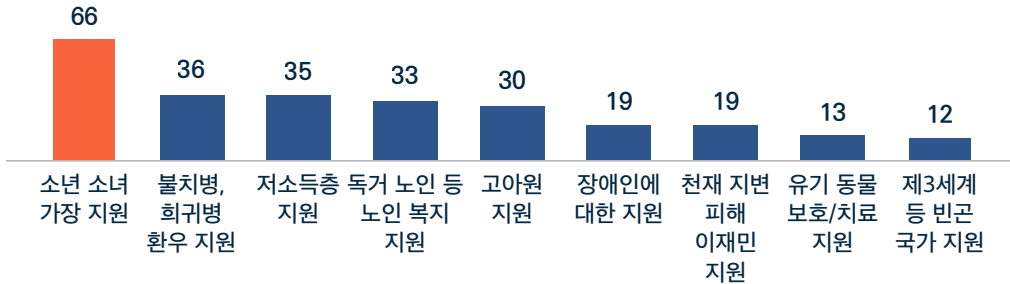
조사 시기	유형	1인 평균
5월(1차)	현금 기부	70,888원
	현물 기부	63,336원
8월(2차)	현금 기부	75,916원
	현물 기부	115,397원

\*자료 출처 : 아름다운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1차 2020.7.21, 2차 2020.11.27, (1차 조사 :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5.11.~5.14, 2차 조사 :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 ● 향후 기부 희망 기관 1위, ‘소년 소녀 가장’

- 향후 기부 희망 기관 및 대상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66%)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불치병/희귀병 환우 지원’(36%), ‘저소득층 지원’(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향후 기부 희망 기관 및 대상(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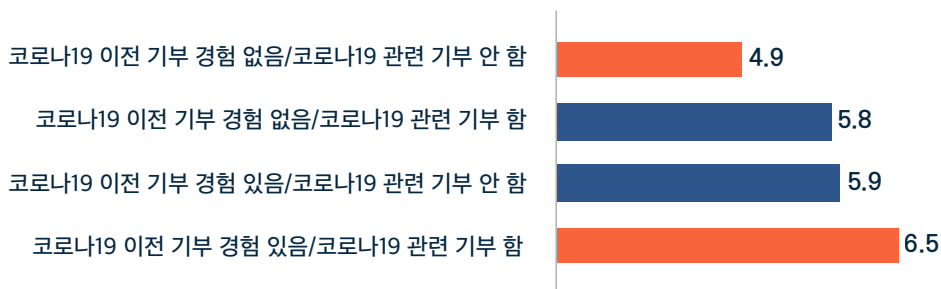
\*자료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기부경험 및 기부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19.12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2.3.~12.6)

## 5

## 코로나19 시기, 비기부자보다 코로나 관련 기부자의 삶의 만족도 크게 높아

- 코로나19 시기의 기부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기부를 하고 코로나19 관련 기부도 한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10점 만점에 6.5점)가 가장 높음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10점 척도, 0점~10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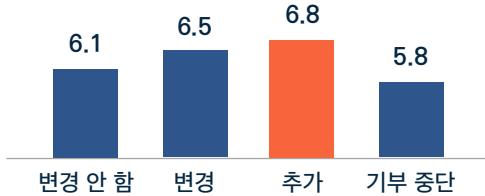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아름다운 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2차 2020.11.27, (2차 조사: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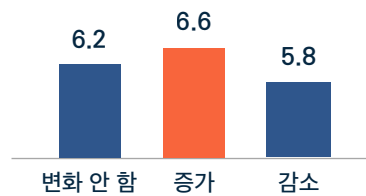
## ● 기부를 적극적으로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짐!

- 코로나19 시기에 기부 대상을 '추가'한 집단에서, 기부액을 '증가'시킨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 대상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점)



[그림] 코로나19 시기 기부액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점)



\*자료 출처: 아름다운재단-Giving Korea 2020,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 조사', 2차 2020.11.27, (2차 조사: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 6



## 기부의 사회적 가치는 인정, '국민의 3명 중 2명은 향후 기부 의향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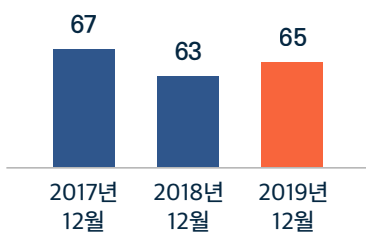
- 국민들은 기부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 갖게 함'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음
- 향후 기부 의향률은 65%로 국민의 3명 중 2명 가량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그림] 기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내가 낸 기부금, 제대로 쓰일까?', 2020.7.29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0.7.3.~7.6)

[그림] 향후 기부 의향 (%)



\*자료 출처: 엠브레인, '기부경험 및 기부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19.12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2.3.~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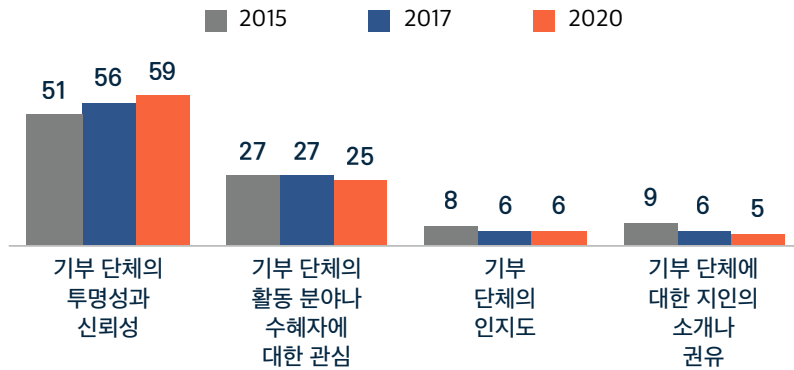
7



## 향후 기부 단체 선정 기준 1위: '기부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 기부 단체 선정 기준은 '기부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따라서 향후 기부 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기부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그림] 기부 단체 선정 기준 (%)



\*자료출처: 아름다운재단-Giving Korea 2020, '개인기부조사' 2020.8 (만19세 이상 성인 2,006명, 온라인조사, 2020.8.12~8.22)

### ● 기부자에 대한 기부단체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향후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국민의 3/4은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사용에 관한 정보 및 모금 활동 비용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비영리조직이 기부금 사용 및 모금 활동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잘 못한다'는 의견은 무려 76%나 되며, 제공되는 정보의 접근성/질/양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기부금 사용, 모금 활동 비용 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그림] '기부금 사용과 모금 활동 비용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 제공 정도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내가 낸 기부금 제대로 쓰일까?', 2020.7.29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0.7.3.~7.6)





## 시사점

“올 겨울 자선냄비 모금액 반토막!”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구세군 자선냄비가 모금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대비 모금액이 40%가 감소했고, 연탄은행의 경우 작년 대비 47%가 급감했다는 기사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 분야를 위축시키면서 불우이웃돕기 모금까지도 위축시키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 활동자의 44%가 급여가 삭감됐거나 무급휴직이거나 실직하였고(넘버즈 64호), 자영업자의 경우 큰 고통 속에서 코로나19를 견디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그들을 돕는 ‘기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3쪽). 특히 코로나 시기에 기부액이 줄어들고 기부를 중단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5쪽). 너도 나도 어렵다 보니 남을 도울 만큼의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기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기부자 가운데 20~30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5쪽). 또한 전에 기부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기부한 사람이 소폭이나마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한 사회가 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기부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그것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선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측은지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측은지심을 좀 더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라는 관계를 맺어 주셨다.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게끔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측은지심에 따라 남을 돕는 행위는 도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울 의무인 것이다. 그 의무는 짐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다가온다. 기부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를 보아도 기부가 기쁜 일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일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1)</sup>에 따르면 종교 가운데 사회봉사/기부를 가장 많이 한 종교로 개신교가 꼽힌 적이 있다.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여러 사회 단체나 어려운 사람을 꾸준히 돕고 있다. 교회만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돌봄이 더 요구되는데, 교회 밖 뿐 아니라 교회 안도 함께 살피야 한다. 교회 내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줘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는 ‘지정 헌금’(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헌금하는 목적 헌금과 다름)이라고 해서 교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마음이 내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교회는 헌금자를 밝히지 않고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도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참고할만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한국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교회를 진실한 공동체로 만들고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1)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2017. 11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 크리스마스(Coronavirus Christmas),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2.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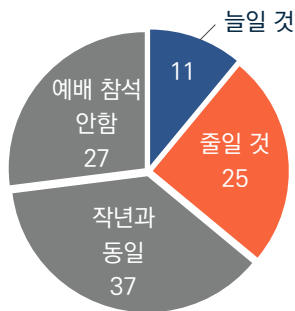


## 코로나 크리스마스(Coronavirus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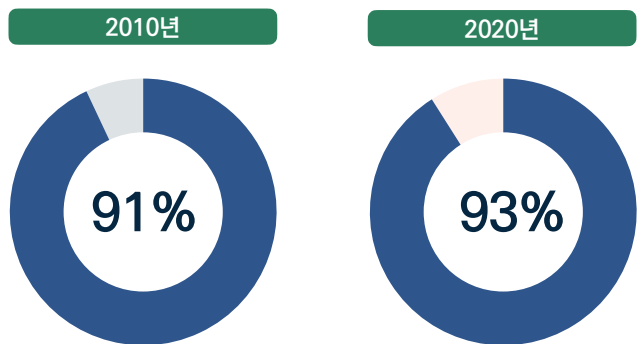
###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미국의 기독교 조사전문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에서 올해 미국인들의 성탄절 예배 참석 의향을 조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참석 줄일 것' 25%, '동일하게 할 것' 37%, '늘일 것' 11%, '예배 참석 안함' 27%로 응답해, 4명 중 1명가량은 예배 참석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함
- 또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보낸다는 미국인은 93%로 나타났는데 10년 전(2010년) 91%와 비슷하게 응답해 코로나19로 예배 참석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크리스마스 예배 참석 예상(미국인 전체) (%)



[그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보내겠다'(미국인 전체, 2010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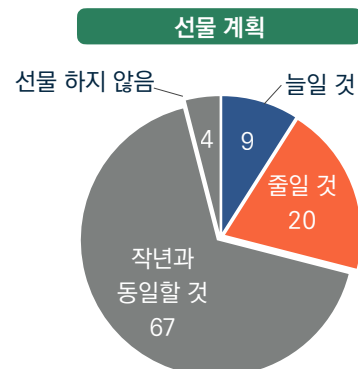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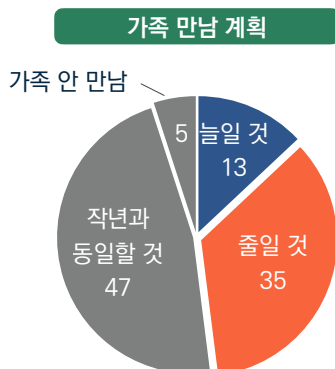


\*자료 출처 :LifeWay Research, 'COVID-19 Bringing Christmas Changes to Many Americans, 2020.12.1.(미국 전체, 18세 이상 남녀 1,200명, 2020.9.9.-23)

### ● 미국인 35%, 크리스마스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방문, 모임 줄일 것'

-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 접촉을 제한하는 권장의 영향으로 미국인들의 크리스마스 때 가족 만남 의향을 묻은 결과, '줄일 것' 35%, '동일하게 할 것' 47%, '늘일 것' 13%, '가족 안 만남' 5%로 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가족 만남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함
- 올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줄일 것' 20%, '늘일 것' 9%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물 역시 줄이겠다는 응답이 높음

[그림] 코로나19 이후 크리스마스 기념 계획(미국인 전체, 가족 만남 vs 선물) (%)



\*자료 출처 :LifeWay Research, 'COVID-19 Bringing Christmas Changes to Many Americans, 2020.12.1.(미국 전체, 18세 이상 남녀 1,200명, 2020.9.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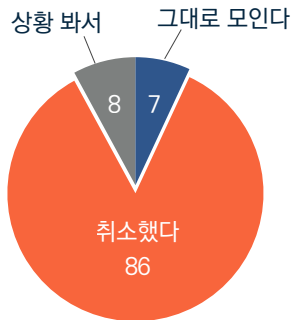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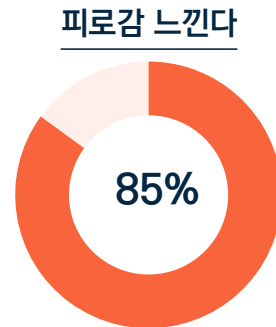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성인 남녀 3,349명을 대상으로 연말 송년 모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송년모임을 잡았다가 취소했다고 응답함

[그림] 송년 모임 취소율(연말 모임 계획자)(%)



[그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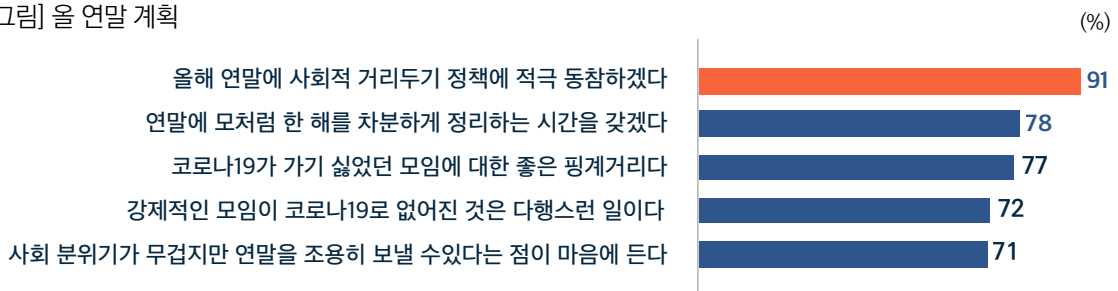


\*자료 출처: 조선일보 '성인남녀 10명 중 9명 "연말모임 취소" 2020.12.24. (잡코리아/알바몬, 전국 성인남녀 3,349명, 2020. 12.22~23)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0/12/24/CNUBXZAPFFGFVFI4QMAKKEYPEI/](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0/12/24/CNUBXZAPFFGFVFI4QMAKKEYPEI/)

### ● 직장인, 연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면서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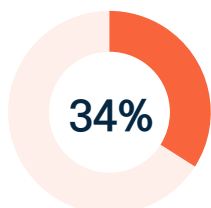
-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말 계획에 대해 질문했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동참하면서(91%), 모처럼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78%)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말 계획에 대해서는 '집콕'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룸
- 직장인들은 코로나19가 연말에 송년회 등 가기 싫은 모임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로 생각하고 있음

[그림] 올 연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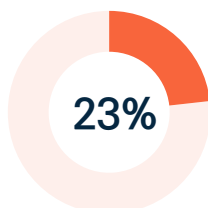


[그림] 2020년 연말 계획(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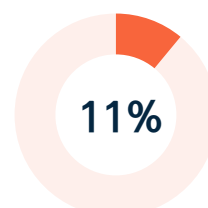
집에서 휴식(집콕, 방콕)



가족과 집에 있기



가족과 함께 보내기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2020 연말분위기 및 연말계획 관련 인식 조사' 2020.12.18. (전국 만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09.-11)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나  
19

[인구대비 백신확보, 韓 OECD 37개국 중 34위](#)

중앙일보\_2020.12.23.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 코로나 감염 예방률 85%”](#)

동아일보\_2020.12.24.

사  
회

[올 겨울 자선냄비 모금액 '반토막'](#)

동아일보\_2020.12.21.

[코로나 탓에 웨딩마치 안 올렸다, 10월 혼인 19% 급감](#)

조선일보\_2020.12.23.

[약용되는 시…"딤페이크, 96%가 음란물"](#)

매일경제\_2020.12.23.

일  
반  
/  
종  
교

[한국인, 사법부 판결 29%만 신뢰](#)

한국일보\_2020.12.15.

[빛은 소득 2배 속도로 느는데…57%가 '내집'도 없는 중·장년층](#)

중앙일보\_2020.12.23.

[서울시민 67.6% "통일 필요"…1년 전보다 6.6%p 하락](#)

연합뉴스\_2020.12.21.

[학생 10명 중 7명 “내 신앙심으로 교회 다닌다”](#)

국민일보\_2020.12.22.

경  
제

[향후 1년 경기전망 '좋아질 것' 21%…'나빠질 것' 54%-갤럽](#)

뉴스1\_2020.12.18.

[월급 15년 꼬박 모아야만 서울에 내 집 마련 가능하다](#)

한국일보\_2020.12.21.

큐  
레  
이  
션

[코로나19가 불러온 우리 경제 변화... '결정적 5장면'](#)

한국일보\_2020.12.21.

[코로나19가 주는 8가지 고통](#)

한겨레\_2020.12.19.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오류동성결교회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 69호-75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송예슬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ys0118@jicom.co.kr](mailto:ys0118@jicom.co.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